

부활절 여섯번째 주일에배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2년 5월22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74 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통일42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1 번 시편 34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2:11-25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참 좋으신 주님”	찬양대
설 교 Korean Sermon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사” (God Hears And Remembers)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가 일하시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40 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21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록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 잡혔던 우리의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너무나 분주하기만 했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며,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2-2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개역개정 출22:4-25)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he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So God looked on the Israelites and was concerned about them.” (NIV Exodus 2:24-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2 (주일)	5/23 (월)	5/24 (화)	5/25 (수)	5/26 (목)	5/27 (금)	5/28 (토)
	민31	민32	민33	민34	민35	민36	신1
본문	시75,76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시81,82
	사23	사24	사25	사26	사27	사28	사29
	요일1	요일2	요일3	요일4	요일5	요일1	요일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25수 오후7:30)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룻1:1-14)
토요 새벽기도회(5/28토 오전6:30)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사82:1-8)

지난 주일(5/15)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출 1:15-2:10)

산파(Midwife)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기와 엄마의 생명을 보전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본문의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심브라와 부아는 히브리인 가정에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에,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 가정에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애굽의 내려진 열 번째 재앙으로 인해,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가정에 사내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에 내던지라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움직이고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즉, 히브리 가정의 남자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나일강 갈대상자(테바, 방주) 가운데 건져 올리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